

## 6/2(목) 시편 7-10편 내가 주께 피하오니 [개인 탄식시]

시편에는 <개인 탄식시>들이 많이 등장합니다.

시인들은 억울한 상황, 탄원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.

재판만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겠지만,

이를 위한 재정, 지위, 언변, 연줄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.

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<조사라도 한 번 해달라>고 간청하는 것입니다.

<불의한 재판장>에게라도 자꾸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(눅18:2–7).

경청하는 이도 없고, 해결 방안도 없지만

시인들은 절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습니다.

그 모든 것을 의로우신 재판장, <하나님께로> 가져갑니다.

“피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십이여

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(9:12).

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(7:8,11, 9:4,8, 10:18).

악인의 편법과 불법, 눈속임에 대해 시인과 함께 분노하시며

잊지 않고 기억하여 보응하시는 분입니다(9:12,18, 10:12).

하나님은 사람과 상황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(8장).

참 심판자요 구원자, 해방자가 되십니다(사사 judge).

시인은 <옳은 편>에 선 것과 <의로운>것의 차이를 잘 압니다.

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결백한 것이 사실이지만,

<내 나머지 삶이 모두 의로운가? >는 다른 문제입니다.

하나님 앞에서는 모든(사람의) 죄가 드러납니다(50:6–21).

시인은 대적을 고소했던 동일한 잣대, <하나님>으로

자신의 삶 구석구석을 세세하게 성찰합니다.

“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

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(7:8)”

나는 의로우신 <하나님>께 나아갑니까?

❶ 참 심판자, 구원자, 해방자 되신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있습니까?

❷ 대적과 함께 <나의 삶>도 심판대 앞에 세울 자신이 있습니까?

**시편1권** (1-41편)

편	유형	편	유형
1	토라(지혜)시편	22	개인 탄식시
2	왕조시편	23	신뢰의 시편
3	개인 탄식시	24	찬양시
4	개인 탄식시(신뢰)	25	개인 탄식시
5	개인 탄식시	26	개인 탄식시
6	개인 탄식시(참회)	27	신뢰의 시편/개인 탄식시
7	개인 탄식시	28	개인 탄식시
8	찬양시	29	찬양시
9	개인 탄식시	30	개인 감사시
10	개인 탄식시	31	개인 탄식시
11	신뢰의 노래	32	개인 감사시(참회)
12	공동체 탄식시	33	찬양시
13	개인 탄식시	34	개인 감사시
14	개인 탄식시(=53편)	35	개인 탄식시
15	입장 기도문	36	지혜시편(탄식시/찬양)
16	신뢰의 노래	37	지혜시편
17	개인 탄식시	38	개인 탄식(참회)
18	개인 감사(왕조, 삼하22)	39	개인 탄식시
19	찬양시/ 토라(지혜)	40	개인 감사 노래/개인 탄식시
20	왕조시편	41	개인 탄식시
21	왕조시편		